

겨울해가 누엿한 오후 다섯 시 소래 산을 오른다.  
노을을 보든가, 야경을 보든가  
작은 랜턴하나를 준비하고 걱정 없이 천천히 걷는다.  
가방 안에는 굴 한 개, 지폐 한 장, 핸드폰, 칫솔 크기만 한 랜턴 하나.  
두런두런 내려오던 몇몇 사람들은 5시 반이 되니 똑.  
인적 없는 산길 적요하다. 싸한 바람이 맵지 않게 상쾌하다.  
산길이 어둠속에 흐려지는데 저 멀리 불빛들은 선명해져 간다.  
순간 형형색색 수많은 빛들을 뿌리며  
거대한 공간을 점유한 인간의 문명이 자못 감동적이다  
한 눈 안에 들어오는 시흥의 거리와 부천의 한 귀퉁이 사이로  
수많은 자동차들이 분명한 곡선과 직선을 그으며 힘차게 달려간다.  
까만 밤은 없다.  
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밤의 산길은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잘 보인다.  
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발밑의 길들은 랜턴을 꺼내들 필요도 없다.  
꼭대기 바위틈에 앉아 굴 하나를 까먹으며  
저 아래 도시들의 이름을 가늠해 본다.  
휘적휘적 잿빛 구름들을 펼쳐가며 드넓은 하늘이 시원스럽게 다가온다.  
오늘 하루의 자질구레함이 비늘처럼 떨어져 나간다.  
저 쪽 어둠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막 올라서고 있다  
순간 그보다 더 시커먼 그림자가 내 마음을 훑어 집어 삼킨다  
잠시 후 그 사람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 아래를 내려다본다.  
다행히 그 남자는 내 옆을 지나 저 혼자 산을 내려간다.  
검은 물체처럼 보이는 그 남자의 등이 작고 외로워 보인다.  
그 남자의 반대편 쪽으로 길을 잡아 내려오는 길  
등 뒤의 어둠은 더욱 어두워  
뒤돌아보지 않고 빨리 걷는다.